

# 신학기 학습·생활지도 공백 최소화

## 코로나19 확산으로 체육계 '개점휴업'

전북체육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전국소년체육대회 잠정 연기

도교육청, 추가 개학 연기 기간 중 온라인 가정학습 자료 일선학교에 안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추가 개학 연기 기간 중 가정학습 자료를 일선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교육부가 1주 간 연기하기로 했던 휴업일을 추가로 2주 더 연장함에 따라 학생들의 신학기 학습과 생활지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초·중·고교 온라인 학습자료는 전북 e학습터(<http://ds.edunet.net>), 디지털교과서(<http://dtbook.edunet.net>), EBS 학습 콘텐츠(<http://www.ebs.co.kr>)다.

'집콕 책콕' 가정독서를 위해서 도교육청 산하 지역도서관의 전자책 도서관, 각 지자체의 시·군립도서관 오디오 북 서비스 등을 담았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년별 가정학습 활동 예시자료를 안내했다. 올바른 손 씻기 등 기본생활 습관과 학습태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가정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책을 읽고 전년도 학습내용을 복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초등 1학년 신입생들의 입학준

비 적응활동을 위해 도교육청에서 개발한 '두근두근 1학년' 사이트(<http://first.jobedu.kr>)에 안전한 생활과 학교적응을 위한 기본생활 습관 등이 동영상, 노래, 학습지 형태로 제시했다. 또한, 이 시기에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탐색 할 수 있도록 커리어넷(<https://www.career.go.kr>), 워크넷(<https://www.work.go.kr>)과 고등학생의 대입진학지도 지원과 상담을 위해 전북교육청 진로진학센터(<https://www.career.go.kr>)와 모바일 상담이 가능한 전북

꿈사다리 진로진학 상담밴드, EBS 온라인 학습 지원([www.ebs.co.kr](http://www.ebs.co.kr))의 6월, 9월 대학수능 모의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기출문제 등도 제공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로 인해 가정에서만 지내야 하는 학생들이 많고, 또 맞벌이 부모 등 가정과 온라인 교육 인프라의 차이에 의해 교육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며 "단 한 명이라도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상반기 체육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는 2020 전국생활체육대축전과 제49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당초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다음달 익산 등 도내 일원에서 전국소년체육대회는 5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이로 인해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축제의 장인 생활체육대축전과 체육 꿈나무 양성의 산실인 소년체육전(대회)을 하반기에 치러질 전망이다. 소년체육전이 연기되면서 각 종목별로 1·2차 선발전을 비롯한 최종 선발대회 일정도 자동 변경됐다. 전북체육회 유인택 사무처장은 "무엇보다 코로나19 종식이 가장 시급한 만큼 일정이 변경된 것에 대해 양해를 해달라"며, "전북 체육계에서도 이번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체육회는 합동·합숙훈련 및 전지훈련 자제를 각 종목단체에 권고한 상태며, 전북 동호인리그와 이달 개최될 예정이었던 체육행사(대회)를 취소 또는 무기한 연기시켰다. /장은성 기자

### 기간제교사도 정교사 1급 자격 취득하면 급여 ↑

올해부터는 기간제교사도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를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정규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을 따면 호봉이 재산정돼 급여가 오른다. 그러나 기간제교사는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할 때 산정된 봉급을 고정적으로 받아야 했다. 이번에 예규가 제정되면서 기간제교원이 한 뒤 경력합산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달부터 봉급 인상이 적용된다. 봉급 재산정은 지난 1월1일부터 적용되지만 당시 신청하지 못한 교사는 1년 내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력합산이 인정된다. /뉴시스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전북체육회관 내 살균 소독제 비치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체육회관 내에 살균 소독제를 비치했으며, 또 계단과 화장실, 출입문, 복도 등에 소독제를 뿌리는 등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전북지역창업보육협의회, 3개월 간 보육료 감면 등 실시



전북지역창업보육협의회(회장 권대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창업보육센터를 비롯해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창업보육협회가 최근 논의를 거쳐 의결이 모아진 것. 전북지역 창업보육센터에서는 각 센터의 운영상황을 고려해 약 3개월 간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의 보육료를 자율감면하거나 관리

비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기로 했다. 권대규 전북지역창업보육협의회장은 "체감 효과는 미미하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기 위해 전북지역 창업보육센터가 의기투합했다"며 "이를 통해 입주기업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창업보육협의회는 도내 16개의 창업보육센터와 4개의 창업 유관기관을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창업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성공률을 제고시키기 위해 전북지역 창업보육센터 간의 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해 보육 기능을 강화하고자 설립됐다. /장은성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세명테크, 업무협약 체결

우수 기술인재 양성·산학협력 활성화 협력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학장 차신태)가 4일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주)세명테크(대표 문성원)와 우수 기술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차신태 학장과 이종래 교학처장, 김용욱 산학협력처장, (주)세명테크 문성원 대표와 하유환 과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을 통해 대학과 기업이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 및 고용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수 기술인재를 양성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유관 분야의 기술정보의 교류를 활성화해 기술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정보, 학생 현장체험학습 기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는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가 4일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주)세명테크와 우수 기술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세명테크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기술인재를 양성해 적시에 공급할 것을 약속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 개학연기 '긴급돌봄' 첫날, 절반 이상 오지 않아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학을 연기하고 돌봄교실 문을 열었으나 첫 날부터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2일 기준 유치원·초등학교 긴급돌봄교실 운영 현황을 4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은 7만1353명, 초등학교는 4만1866명이 긴급돌봄 이용을 신청했다. 전국 전체 유치원 원아의 11.6%, 초등학교 학생의 1.8%

가 신청한 셈이다. 반면 긴급돌봄 첫 날인 지난 2일 교실을 이용한 아동은 전국에서 유치원 3만1840명(43.2%), 초등학교 2만3703명(48.7%)에 그쳤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이들 지역의 신청률은 전국 11.6%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개학을 2주 더 연기하면서 5일까지 긴급돌봄교실 추가 수요조사를 받고 있다. 학부모는 인근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신청하면 된다. /뉴시스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